다산포럼

유지나

절망을 희망으로 끓여낼 '도가니'

가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지만 곧 떠나버린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오래오래 머물지 않기에 허전함이 밀려온다. 사람들은 좋았던 것이 반복되기를 욕망한다. 고맙게도 자연은 순환법칙을 따라 돌아가니 가을은 다시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사는 자연법칙처럼 조화롭게 돌아가지 않는다. 사노라면 절망적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온갖 궁리를 짜내도 더 이상 좋을 게 없다는 확신이 서면 그런 막막함으로부터 탈주하고픈 욕망이 들 것이다. 지독한 절망을 끝내는 방책으로 삶과의 이별도 가능해진다.

눈이 시리도록 황홀한 하늘 풍경을 투영하는 강물도 가을이면 더욱 아름답다. 그런데 그 청아한 물결을 뚫고 이틀에 한 명꼴로 한강에 투신자살 한다는 라디오 뉴스를 며칠 전 들었다. 지난 5년간 892명이 삶과의 이별식을 한강에서 치른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살만하다는 국가들 모임 OECD에 들어가 있지만 자살률 1위를 유지하며 살아내기 힘든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살시도 현황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에 속한 (10분위) 이들의 자살시도가 지난 3년간 10%씩 급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크기가 살아갈 의지와 무관하다는 뜻으로 새겨볼 만한 비극적 자화상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 미국의 가구당 부채액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액 증가 소식은 시대의 절망적 우울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폭락하는 증시 전광판 앞 얼빠진 얼굴 사진을 보며 인도영화 '세 얼간이'가 떠오른다. 엘리트 공학도를 길러내는 인도 명문 공대 학장은 자동차 경주처럼, 둥지 밖으로 다른 알들을 떨어뜨리면서 부화하는 뻐꾸기 되기 생존법칙을 강요한다. 그런 생존법칙을 못 따라잡은 학생들의 자살과 자살시도가 이어진다.

반면 이런 승자독식 인생론에 저항하며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란쵸와 두 친구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얼간이들이다. 자살학생 장례식에서 란쵸는 학장에게 항의한다. 그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고. 이런 현실은 영화 속 허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공학계열인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과 사회 전반적 분위기로 연결된다. 반값 등록금 투쟁하던 학생들이 물대포를 맞고 끌려가는 모습은 시대의 우울을 증폭시킨다. 그래서일까? 유독 '세 얼간이' 다운로드가 한국 네티즌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누려 마침내 뒤늦게 영화를 수입해 극장에 거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

정신의 줏대인 얼에 맛이 간 얼간이판 세상살이. '일등되기=돈=성공=행복'을 추종하는 길과 자신의 내면과 접속해 자신만의 길을 가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진짜 얼간이인지 사유의 계절에 되새겨볼 문제이다.

얼을 간직하며 살아내기도 힘든데, 절망의 지뢰밭으로 점철된 일등되기 경주로 내모는 사회, 교육 시스템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를 경쟁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것은 아닐까?

소설 '도가니'를 각색한 영화 '도가니'가 잊혀진 장애인 성폭력문제를 학교재단 비리와 함께 재수사하도록 물꼬를 텄다.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강단에 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공권력과 저널리즘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를 다시 끓여낼 '도가니'에서 진실 영화의 힘을 발견한다.

시월, 깊어가는 짧은 가을의 낭만을 즐겨야하는 이 시절, 자살이 급증하는 사회에서 희망의 싹을 발견한 것은 천만 다행이다. 부당한 세상법칙을 나지막하게 격정적으로 읊어내는 음유시인 레너드 코헨의 '모두 알고 있지(Everybody Knows)'를 다시 듣는다.

"모두 알고 있지/ 가난한 이들은 늘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걸…/ 모두 알고 있지 배가 새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 선장이 거짓말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어 참담한 기분을."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라디오에서 가을예찬과 더불어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줄기차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가을날, 눈 뜨기 힘들 정도로 청아하게 시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낼 밖에. 그건 절망이란 재료로 희망을 끓여내는 도가니를 빚어내는 것, 언행일치 노마디즘의 철학자 들뢰즈의 말처럼 '저항으로서 창작행위'일 것이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책사업 영남 편중, 호남은 안중에 없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남에 무려 17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집중된 반면 호남은 그 5분의 1 수준인 3조4000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와 첨단산업에 이르는 국책사업들이 영남에 편중되면서 영·호남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이 2일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제 사업이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인 대형 국책사업은 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남 지역의 국책사업은 47건에 달한 반면, 호남은 11건에 그쳤으며 예산 규모도 영남이 17조3천억 원에 이른데 반해 3조4천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첨단산업과 관련한 국책 사업들이 영남에 몰리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하드웨어(SOC)는 물론 소프트웨어(첨단산업)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호남의 경제적 소외가 고착화 된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특정지역 편중과 차별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3년 7개월 동안 영남 독주와 호남 배제를 노골적으로 해왔다. 인사 '싹쓸이'는 물론이고, 호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싹둑 잘라 경상도 쪽에 몰아 주는 억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실패한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자구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모두가 똘똘 뭉쳐 국책사업 예산을 빼앗기지 않고 빼앗아 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치판 '구태' 뺨치는 조선대 총장 선거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가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최근 치러진 총장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대학 구성원 간에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라는 대학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인 정치판의 혼탁 선거를 뺨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조선대 총장선관위는 2일 일부 예비후보자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전호종 총장의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선거는 입후보자 자격심사- 예비선거- 본 선거- 이사회 추천 등 직·간접제를 혼합한 총장 선출 방안에 따라 최종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추천 후보를 상대로 면접과 토론 등 4시간여 회의 끝에 2위로 추천된 전호종 현 총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탈락한 교수 등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이사회 의결 내용을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다. 향후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선대 총장 선거는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직 총장의 선거 개입, 현역군인들의 특정교수 이메일 해킹사건, 선거관련 이사와 일부 교수 괴청년 협박사건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후보 간 담합 등 온갖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판보다 더한 구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 총장 선거가 불·탈법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조선대 총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 대학들은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 구성원이 합심해도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절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감투에 눈이 멀어 이전투구를 일삼는 구성원이 있다면 본인이나, 학교, 지역을 위해 대학을 떠나는 게 낫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갈등과 분열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음부즈맨 칼럼

언론의 정도

조연술

어느 철학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미국에서는 기자와 교수가 제일 신망과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는 기자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펜의 위력을 발휘하여, 모순과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제시와 더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회 정의 실천에 선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교수는 학문과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 학생들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의 귀감과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교육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매우 급변하고 있다. 신문이 없던 시절 라디오 한 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던 시대가 불과 50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언론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일상적인 정보습득과 전문적 지식, 국가적 이슈, 사회동정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찾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 언론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

따라서 이러한 독자의 욕구에 대처해주는 기능이 지역 언론의 중요한 임무라 생각된다. 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비리, 그리고 개선해야 하는 사안은 과감하게 정도의 펜을 들어 지적하고 비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법은 사후 보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은 모순과 잘못을 사전에 지적하고 비판하여,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계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러나 비판과 개선을 위해서 선의적인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게 언론의 의무라 생각된다. 우리 언론이 정말 정도의 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여과 없이 독자에게 전달하여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자칫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알권리의 충족과 더불어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화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보도를 통해 계도하고 사회 구성원이 잘못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줄 때 언론이 제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된다. 지역언론은 고유의 특성과 개성이 있어야 많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체들이 할 수 없는 현장 밀착형 취재, 어떤 사안에 대한 집요한 분석과 비교를 통한 객관적 보도 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잘 정리 보도하여 외부인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요즘 광주일보를 보면서 좋은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공공기관이 대비 할 수 있는 기사가 많다는 것이다. 그 예로 'F1 교통대란 우려', '여수 엑스포 개최시 SOC 문제' 등이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문제를 기사화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을 기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 시키는 보도는 매우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연합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내용을 결합시켜 생생한 기사가 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떤 보도든지 반드시 현장확인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해 독자들이 실감나는 기사를 접할 수 있고, 독자의 궁금한 문제점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광주일보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더불어 인정과 의리가 메말라가는 무척 안타까운 현실에서 인정 넘치는 사회, 애향심을 고취시켜주는 기능도 언론이 일부를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 지난번 '부산의 어떤 분의 5·18 관련 애정' 보도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기사였다.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회헌신과 봉사, 미담 등의 사례 보도를 통해 우리의 메말라가는 정신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광주일보가 해줬으면 한다.

물질의 풍요와는 달리 메말라가는 세상의 인심과 일부 도덕성의 실종 등, 제반 사회의 부적절한 행태의 계도 기능도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본다. 언론이 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독자로부터 신뢰받고 늘 아침 신문을 기다리게 하는 광주일보의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광주테크노파크 인력양성센터장〉

NGO 칼럼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을 맞으며

장영진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에서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빛고을 광주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985년 학동과 광천동 일원에서 가정개발사업을 착수한 이래 1991년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개관하여 지역복지사업을 진행한 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바,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펼쳐 왔다.

특히 2000년 5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는 300명의 저소득가정의 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등에게 저녁밥을 제공하여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 서비스 및 저소득 가정의 위기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례관리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들을 통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고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역량이 강화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되도록 선도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복지는 모두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그 관심의 정도가 높아지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환경에 걸맞은 이슈를 요구하고 당당히 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은 어느 기관 혼자만이 노력한다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심과 의지의 실천과 민·관의 끊임없는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해 한해 모아져 쌓아진 땀방울의 수고가 향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뿌리고 있는 작은 열정들의 씨앗을 통해 언젠가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의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더 새롭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의 복지센터로 우리 직원 모두 함께 열심히 전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월드비전 무진종합사회복지관장〉

無等鼓

'요우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개천절 연휴에 전국 유명 관광지마다 중국 '요우커'(遊客)들로 시끌벅적했다. 요우커는 국내 여행업계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지칭하는 말이다.

요우커들이 한국에 대거 출현한 것은 우리의 개천절 연휴에 맞춘 것이 아니다. 1일부터 시작된 그네들의 국경절(國慶節) 연휴에 맞춰 한국을 찾은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이날부터 1주일을 연휴로 즐긴다. 최근에는 3~4일만 쉬는 사람들도 많지만 국내외 장거리여행에 나선 이들은 1주일 내내 나들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중국인들에게는 고향과 부모형제를 찾는 보름가량의 설 연휴가 가장 큰 연휴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국경절과 함께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노동절 연휴로 가슴 설렌다. 봄나들이에 좋은 노동절과, 초가을 무렵의 국경절은 날씨도 좋아 두 연휴를 '황금주간'으로 부르기도 한다.

요우커들의 국경절 연휴로 이웃인 한국 관광업계는 연일 북새통이다. 이미 10여일 전 수천명의 중국 단체관광객이 제주를 휩쓸고 지나갔다. 국경절 연휴 시작과 함께 서울과 부산, 제주는 명소마다 요우커로 넘쳐나고 있다.

요우커는 씀씀이도 크다. 백화점마다 한국산 화장품이며 의류 매장은 연일 요우커들의 싹쓸이로 즐거운 비명이다.

반면 중국과 지척이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무안공항에 직항로까지 개설돼 있는 광주·전남에는 얼마나 많은 요우커들이 찾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대표 명소들이 즐비한 서울이나,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와 광주·전남의 방문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그동안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요우커 유치를 위해 외쳐온 요란한 구호를 돌이키면 무색할 정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요우커들의 발길을 모을 비책이 급하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지자체 축제들 비슷…지역민 참여토록 내실 키워야

10월 들어 지자체마다 각종 문화축제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몇 곳의 축제를 다녀오다 보면 지역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축제가 많다. 이제는 보다 독창적이고 그 지방만의 특성과 전통을 살리며 더욱 많은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내실 있고 알찬 문화행사 개발에 노력했으면 한다.

사실상 많은 비용을 들여 개최해 주민들의 화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타지역에서 했던 행사들을 모방하거나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역문화축제가 될 수 없다.

다른 지역이 하니 우리 지역도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또한, 인기연예인이나 가수, 사회자들을 초대하게 되면 행사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장기자랑, 풍물놀이 경연, 서예나 도자기, 시·시조·사진 전시회 등으로 다양화한다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